

김현미 장관, “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산해나갈 것”

- 12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우수 성과 청취·확산 위한 전문가 간담회

- 신도시·농어촌 등에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 모델 적극 확산 추진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(금) 농어촌·산간벽지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정보통신기술(ICT)과 결합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‘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’의 활성화 방안을 업계, 지자체, 전문가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
○ 이날 간담회에서는 ‘셔클’(서울 은평구), ‘I-MOD’(인천 영종도) 등 최근 실증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들의 성과를 공유하였으며,

* 셔클 : 앱 호출시 지정된 장소를 경유하는 대형승합택시(만족도 91.6%)

I-MOD : 승객이 호출한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16인승 셔틀(만족도 91%)

○ 이러한 서비스를 신도시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농어촌 및 산간벽지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이날 김 장관은 “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여 공공성 높은 대중교통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, ICT와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빠르게 전환해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하며,

○ “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모빌리티 비전 2030을 통해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체계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바 있다”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“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·업계가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○ 특히,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2020. 6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